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해외 단기 선교 훈련 활발

선교위원회, 선교연구원, 대학, 청년1부 등
7~9일간, 인도네시아 · 태국 · 홍콩으로

학 교의 방향 및 직장인의 휴가철을 맞아 해외 단기 선교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

1993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서만수 선교사 시무)에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도와주면서, 또한 한일청소년지도자대회로 일본을 다녀오면서부터 해외로의 선교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도 1994년의 세계선교대회를 한국에서 치르고 매년 '선교 한국' 행사를 치르면서 젊은이들의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이 급증하고 있다.

선교 개념이 국가에서 종족으로 바뀌면서 12,000여개에 달하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한 교회가 한 종족씩 입양하여 전도하려는 운동이 퍼져 나가면서 여름철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들과 접촉하여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관심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여 대학 · 청년부 회원들을 단기 선교 사역으로 파송하고 있다.

또한 교회 밖의 각 선교단체에서 모집하여 실시하는 해외 단기 선교 사역에도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우리 교회는 1993년에 인도네시아에 이어 94년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95년에는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을 다녀왔다.

이는 실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 대상자들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상의 교육과 훈련이 없다는 것을 다녀온 사람들은 누

구나가 느끼는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선교 현장을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면 평생을 선교적 관심 속에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선교위원회가 주관하여 인도네시아 및 태국을, 선교연구원이 홍콩을 다녀올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7월 22일~30일(8박 9일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도와주고 오지 현지 탐방 및 그곳에서의 선교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지도, 단장 외에 대원 10여명이다.

• 태국

8월 19일~27일(8박 9일간),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김문수 태국 선교사의 안내를 받아 현지인 심방, 이송, 미용, 의료 활동을 통한 전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펼치게 된다. 저녁 시간에는 선교세미나를 가져 현지 선교의 실재를 살펴볼게 된다. 지도 단장 외에 대원 15명이다.

• 홍콩

8월 5일~12일(7박 8일간), 선교연구원 의 선교 훈련으로 실시하는 사역이다. 홍콩 우두각교회(김은태 선교사 시무)를 중심으로 노방전도, 초청전도집회, 축호전도, 중국 대륙 교회 방문 및 선교 세미나 등을 가질 계획이다. 지도, 단장 외에 20-25명 정도의 대원이 함께 하게 된다.

선교위원회와 선교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에게 각 개인당 30만원씩 교회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선교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선교지 후원, 지원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 4부예배 후 정기 제직회 모입니다

정기 제직회가 오늘(6월 23일), 4부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제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남성중창단 연주회

7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충 현남성중창단의 연주회가 7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 연주회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 20여곡과 콘트라베이스(이규원), 첼로(오경남), 트럼펫(차복근) 연주도 있게 된다.

남성중창단은 1994년, 교회내 찬양대원들로 구성, 그동안 저녁 찬양예배, 금요집회와 대외적으로 연주 활동을 해왔다. 이날 연주회는 충현교회 찬양위원회가

주관하고 실업인전도회, 아델전자가 협찬, 크리스찬라이프와 아세아방송, 극동방송의 후원으로 열린다. 충현남성중창단은 김윤경 선생 지도하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휘, 피아노 / 김윤경
테너 1 / 이재욱, 최문성
테너 2 / 김봉균, 노영광, 장상원,

바리톤 / 전이배, 홍인국
베이스 / 이규원, 이진석



제2교육관 주차장 사용

지하 1, 2, 3, 4층에 약 300대 주차 가능

차 량관리부는 제2교육관 지하 주차장이 완비됨에 따라 제2교육관 지하 주차장을 개장하고 주일에 주차를 시키고 있다.

제2교육관 지하 주차장은 지하 1~4층으로 총 300대 가량을 주차시킬 수 있어 교회의 주차난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기 시설 및 조명 등 주차장으로서 모든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일에는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차량관리부에서는 지하 3, 4층은 직분자 및 오랜 시

간 동안 주차할 성도들이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다.(사진, 제2교육관 주차장 입구)



충현동산 관리동 신축

연건평 500여평의 2층 건물로

재 단법인 충현동산 이사회는 충현동산 공원과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충현동산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하는 교인들의 불편이 있어 새로운 관리동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이 일을 교회 건축위원회에 의뢰하였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설계를 확정하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광주군에 제출하였고 허가가 나오는 대로 곧 착공할 예정이다.

충현교회 교인 중에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 관리과(☎ 552-8200 교환 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내역 -

- 공사명: 충현동산 관리동 신축공사
- 신축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목현리 173-1, 173-3
-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 용 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규 모: 지하층 - 창고(139.04㎡)
1층 / 사무실 및 휴게실(283.84㎡)
2층 / 관리인 사택(70.00㎡)
연건평 / 494.88㎡(149.96평)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 (4월 5일) 새벽기도회 ○

내 사랑아!

(아 6:4-9)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의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왕후가 욕심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아 6:4-9)

지난 고난주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열어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특별부흥사경회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오신 감사 목사님의 자기 체험과 간증이 담긴 메시지는 온 교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우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어 <주간총현>에서는 부흥사경회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풀어 전하기로 하였다. 연재 순서는 부흥사경회 일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 (편집자)

한번 다 같이 받아 합시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사랑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내 사랑아”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처음 읽어보는 분들은 글썽 이런 글도 성경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신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영적인 신부가 된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생각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내 사랑아” 그렇게 부름을 받는 성도는 어느 만큼, 얼마큼 잘 믿는 성도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몇등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롯 유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세상에 난 것을 탄식을 했어요. “제 사람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탄식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눈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벗어난 그는 참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그것을 후회해서 자살을 하고 팔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자살을 하다니 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롯 유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자칫하면 예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가롯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도마 같은 사람이 있지요.

도마는 의심 많았을 때 공교롭게도 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었다” 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못 흔적을 만져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방에 계시다가 그 말을 듣고 나타나신 것처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내 발도 만져 보고 상처를 만져 보아라”고 그랬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을 만져 보고 그는 “주여 나의 하나님에 찬미다.”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많을 텐데.” 좀 섭섭했습니다.

칼벰은 개기에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 믿는 신앙보다도 보지 못해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는 신앙보다도 더 크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아 하세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도마는 늘 의심을 했어요.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배릇이 있어서 예수님이 점점한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 제자는 가롯 유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아서 훌륭한 사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볼 때 든든하다, 교회를 맡길 만하다, 교회



김덕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연재 순서 —

- 첫째날 (4월1일)
 - 저녁 집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14:6)
- 둘째날 (4월2일)
 -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출 17:1-7)
 - 낮 공부 은혜와 은사(고전 12:4-11)
 - 저녁 집회 다윗의 신앙간증(시 23:1-6)
- 셋째날 (4월3일)
 - 새벽기도회 다윗의 신앙고백(시 51:1-15)
 -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창 28:10-22)
 - 저녁 집회 징조를 구하라(사 7:10-17)
- 넷째날 (4월4일)
 - 새벽기도회 구름기둥 불기둥(출 13:19-22)
 - 낮 공부 축복과 복(창 48:1-7)
 - 저녁 집회 말세의 하늘의 새 가지 음성(계 17:15-18:5)
- 다섯째날 (4월5일)
 - 새벽기도회 내 사랑아(아 6:4-9)

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하다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네 이름을 게바, 즉 반석이라 하리라” 든든하다는 말 아닙니까? “네 이름을 게바, 즉 반석이라 나는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

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신앙을 든든하다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보고 주님이 보고 든든하게 생각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든든하다, 교회를 맡길 만하다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너의 이름을 게바, 즉 반석이라 하라 내가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든든한 신앙을 나타내는 교회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가이지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내 사랑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들도 요한처럼 내 사랑아 그렇게 불러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데.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예수님께서 잘 믿는 성도를 보고 그렇게 아주 칭찬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칭찬 받는 참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해당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변화가 오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령주령 맺는 사랑의 성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라고 그래요. 받아 합시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나라” 그런 사랑의 열매가 주령주령 달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사랑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살 펴봅시다.

아가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받아 합시다.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답도다” 검은데 왜 아름다울까요? 검은 것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어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같이 받아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내 목욕한 것 살고, 은혜로운 것 살고, 착한 것 살지만 진자로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같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름다웠으나 주님을 만나므로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도다” 믿습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받기 전에는 나는 살고 죄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죄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주껏 죄 짓고 죄를 숨기려고 하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심판에 따르고 권능이 따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기 전에는 나는 살고 죄는 죽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양반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으로 봐서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볼 때는 바리새파요” 바울은 이런 굉장한 사람인데 굉장한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 (4월 5일) 새벽기도회 ●

냐?” “당신이 누구니까?” “네가 꾀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일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는 복음을 받기 전에 율법의 사람으로 흠이 없다고 말하던 그가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고, 잘난 것 죽고, 세례 받은 것 죽고, 히브리 사람 죽고, 베냐민 지파 중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는도다라고 고백했어.

다같이 받아 하세요.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는도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한번 더 말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아요. 내 잘난 것 살고, 내 똑똑한 것 살고, 내 재주 살았다고 하지만, 참말로 은혜가 임하면 나는 죽어요. 내 잘난 것 죽어요. 내 똑똑한 것 죽고 죄만 살아나는도다 그래요.

제가 한문으로 한번 새겨 봤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살고 죄는 죽었다, 즉 아생죄사(我生罪死)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한 번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생아사(罪生我死), 즉 죄만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 사랑아’라는 말은 대단히 영적인 경지가 깊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라고 탄식합니다. 심중전쟁(心中戰爭)입니다. 그것을 아가서에서는 시적인 표현으로 “내가 비록 겹이나 아름답도다” 한 것이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칭의(稱義)를 말합니다. 내가 잘 믿어 가지고 의롭게 되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 마음으로도 절대로 죄를 생각 안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의 교리예요.

제 얘기를 하나 드려서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 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한번 꿈을 꿔봤습니다. 꿈 얘기인데 천당을 갔습니다. 천당을 갔는데 천당을 못 들어갔어요. 천당을 못 들어가 천당 문 앞에 서서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마주 서 계시는데 아주 정답게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아주 정답게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은 꿈은 꿈인데 비유 꿈이라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딴 데를 보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보고 딴 데를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재빨리 달려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뒤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니 뒤에 선 자가 누구고? 네 뒤에 선 자가 누구?” “네 감덕신입니다.” “네 앞에 설 수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저 골고다 산상에서 그가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가 손으로 범한 죄를 위하여 내가 양손에 못박히고, 그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았고, 발로 짓는 죄를 위하여 내가 그의 대신 십자가에 못박혔나이

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고요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서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뒤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 하세요. “구원은 예수님 뒤에 서서” 그걸 이신득의(以信得義)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예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뒤에 서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 하세요. “예수님 뒤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당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뒤에 서세요. 찬송가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539장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검은 것은 태양으로 인하여 검어졌도다 내가 비록 겹이나 아름답도다” 겹지만 아름답다는 칭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은혜가 임하면 죄는 살고 나는 죽었구나.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죽을 때까지 전쟁합니다. 한번 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니”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못 지키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의롭게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을 해도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아무리 전쟁해도 죄를 다 못 이겨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디르사’란 한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성으로, ‘굳세고도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 하세요. “네 믿음이 굳세고도 아름답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굳세다 이겁니다. “

또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눈을 칭찬하십니다. “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눈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 하고 아름답게 박히었구나”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 눈이 어떠하겠어요. 늘 눈에 물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귀한 눈물을 의미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뵈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받아 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뵈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누구의 의를 힘입어 자기 의를 힘입어 자기 똑똑한 거 힘입어 자기의 재주를 힘입어 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받아 하세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그럴 때에 어엿이 앞에 서겠네. 받아 하세요. “어엿이 앞에 서겠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뵈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번 더 받아 합시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날 보고 겹다고 하지 말라 내가

줄을 믿습니다.

다같이 받아 하세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디르사’란 한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성으로, ‘굳세고도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 하세요. “네 믿음이 굳세고도 아름답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굳세다 이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네 눈이 아름답도다” 아가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눈을 칭찬하십니다. “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눈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히었구나” 예수님이 눈을 보고 칭찬을 하십니다.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 눈이 어떠하겠어요. 늘 눈에 물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귀한 눈물을 의미합니다. 받아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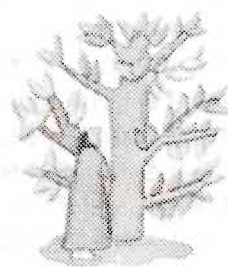
성도는 일생 동안 두 번 우는데, 한번은 자기의 죄를 인해서 회개할 때 울고, 또 한 번은 믿음을 안 가진 식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운다고 합니다.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 눈 같은데 젖으로 씻은 것같이 아름답게 박히었구나” 이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말합니다. 사랑에 충만한 생활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눈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내 사랑아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모양으로 이가 깨끗하다” 입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말 솥씨가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말이 경건하다 이겁니다. 이사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 있을진저 나의 입술이여” 하면서 엎드려서 통곡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제단 솥불을 가져와 입을 지저 주면서 “네 죄가 제거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런 성도를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네 입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자꾸 남의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 안합니다. 칭찬 안하고 내 꿀치 내 두통아 그러면 안됩니다.

받아 하세요. “내 사랑아 네 얼굴 뺨은 석류 한 조각 같고” 석류는 붉고 흰니다. ‘붉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데 성도의 염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회다’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내 사랑아” 하는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재 끝)



토막소식

- ▶ 영아부는 오는 30일(주일)에 새친구초청잔치를 연다.
- ▶ 초등4부는 오는 7월 7일(주일)에 새친구초청잔치를 열기로 하고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 ▶ 중등3부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소선지서이다.
- ▶ 장년3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17절을 범위로 성경암송대회를 연다.
- ▶ 소망부는 내일(24일)부터 이틀간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롬 5:5)이며, 강사는 이종대 목사, 윤종일 목사, 배옥인 전도사이다.

- ▶ 새가족부는 오는 26일(수) 수요일부 예배를 마치고 아차산에서 양육위원 전체기도회를 실시한다.
- ▶ 선교위원회는 오는 7월 5일(금) 오후 6시에 만나홀에서 전체월례회를 개최한다. 목사, 장로, 선교를 위한 기도 및 헌금 후원자, 그밖에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 ▶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단 야외예배가 지난 6월 18일 광릉수목원에서 있었다. 전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장로들과 93명의 회원이 모여 가진 이날 야외예배는 전반기에 대한 평가 및 후반기에 대한 새로운 마음 가짐과 자세, 서로간의 교제 등을 목적으로 모였다.
- ▶ 가브리엘찬양대는 27일(목)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암송할 범위는 요한1서 5장이다.

선교위원회

성경, 찬송가 수집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지에 보낼 성경, 찬송가를 수집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깨끗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성경과 찬송가(가능하면 합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기간 : 6.30~7.14
- 수집장소 : 본당 로비, 사무국, 선교위원회실(선교관 405호)

영아부 · 고등부 · 청년1부

총동원 전도 운동

영아부 · 고등부 / 6월 23일, 청년1부 / 6월 29, 30일
청년1부—바자회, 일일찻집, 음악회 등 연관 행사

영아부, 고등부 및 청년1부가 교회 내에 산재되어 있는 영아부 어린이들과 고등학생들,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동원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다.

영아부와 고등부는 6월 23일을 총동원의 날로 정하고 특히 고등부는 500여명에 달하는 장기결석자를 전원 출석시킬 계획을 가지고 담임교사와 학교별 모임인 돌로스 조직을 전원가동하여 이 일에 임하고 있다.

청년1부는 교회내 20대 청년을 청년1부로 불러 모아 20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마련된 청년1부에서 함께 교육받으며 함께 교제하며 지내기를 바라며, 또한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

사역과 국내 낙도·오지 전도 사역을 위해 동참하기를 원하며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1부에서는 6월 29일(토) 오후부터 선교 바자회, 일일 찻집, 찬양 콘서트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6월 30일은 총동원 주일로 계획하며 교회 내의 20대 청년들과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교인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며 협조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피차 위하여 기도하며 진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시

우리의 짧은 생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변함없는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주행길 인도자여!
겨울 문 밖에 서성이는
바람처럼 살게 마시며
게울러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모든 것 주님께서
되돌려 주셨지만
전혀 다른 의미에 희열로
아버지와 멀어지게 마시고

기도

마음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으로 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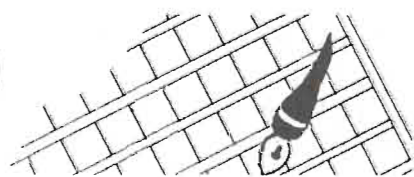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잠 21:31)

세상 부유함으로도 마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로도 마시고
이 땅 위에 아버지를 부르는
많은 영혼들
날마다 아버지 곁에서
새로움을 얻게 하소서.

이인순

(집사, 제11-1교구, 할렐루야찬양대)

주간충현(계간충현)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충현(계간충현)에서는 보다 더 감동적이고 친근한 신문으로서 한 걸음 더 모든 독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주옥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는 아까운 산 체험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간충현(계간충현)으로 보내주시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원고 종류 / 간증, 수필, 시(동시), 제언, 일기, 서간문, 서평, 이런 일은 고집시다, 각 부서 소식, 지원교회 및 선교지 탐방, 만평, 소설(동화), 콩트, 기타

2. 원고 마감 / 주간충현은 마감입니다. 다만 시사성이 있는 원고나 뉴스 종류는 게재될 전 주일 찬양예배 전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는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십시오.

충현 대학부 수련회가 7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3박 4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수련회를 맞이할 때마다 이번에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가장 궁금해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는 참 범위가 넓은 생각을 하며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앞날을 생각하다보니 그렇게 멀지만은 않은 얘기였습니다. 곧 직장장과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될 것이고, 많은 선배들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선배들도 직장이라는 사회(우리는 현장이라고 부릅니다) 속에서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계획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텐데, 그 일들을 할 때 마음 속에 품어야 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

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인 현장에서, 그들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터도 지금은 학교에서 겨우 "나, 오늘 교회에 일이 있어서 가봐

각합니다.

개인의 삶의 틀은 20대에 다져진다고 합니다. 그 초반에 있는 청년들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참 바랍니다. 지금 머리

* 대학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며 2 *

‘어떻게 살 것인가’

박지원

(대학부 회원)

야 해" 하며 겨우 교회인(敎會人)임을 보입니다. 학원에서 입시를 위해 고민하는 지체나, 자기의 장래를 위해,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학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다 들으면 좋겠다고 생

숙으로 그리고 있는 인생의 설계가 훌륭한 잣대 위에서, 또한 최후의 목적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학부 수련회에는 30년간 청

년의 부흥을 위해서 애써오신 최재선 목사님(선한교회 담임, 중앙대 경제학 교수)의 강의와, 그 동안의 집회를 다니엘서의 꿈으로 채워오신 장봉생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학부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충현의 모든 젊은이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반가웠고, 충현교회라는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말씀으로 마음을 나누는 점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뱃고 계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7월 1일 아침 9시에 본당 앞에서 출발합니다. 주저없이 오셔서 대학부 임원을 찾으시면, 이름을 적어주시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이 난다고 합니다.(물론 소액의 회비를 잊지 마시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주저없이 찾아오십시오.